

안녕하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며 인사드립니다. 금년에 월별로 적어 놓았던 기록을 꺼내 보니 한해 동안 주께서 함께하신 많은 상황들이 새롭게 기억이 됩니다.

많은 감사와 함께 지난 9월부터의 소식을 전합니다.

- ❖ 먼저, 어머니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장의 가스가 차는 현상은, 계속 식사를 주의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요. 주 3회 받던 재활을 이제 주 2회로 줄여 지속적으로 체력에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생애 처음으로 하는 ‘운동’의 효과를 어머니도 깨닫고 집에서도 간단한 운동들을 하시니 참 감사하죠. 노령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계속해서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 ❖ 9월~11월에는 주 1회 ‘에스라’ 성경대학원 공개강좌 ‘신명기’와 ‘사도행전’을 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기록된 율례들의 모든 기초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조명되어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 11월 22일에 ‘말리’-‘조’ 신약성경 봉헌식을 감사하게 치렀습니다. 이제 성경을 손에 가질 수 있는 ‘조’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내년 1월~5월에 예정된 파압대학원 ‘의미론’ 강의는 학생수가 저조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코로나 종료 이후에 ‘줌’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파압’사역은 1년 안식년을 계획합니다.
체력도 단련하면서 조금 쉬는 기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정된 2개 언어의 <문법>-컨설팅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계획하고 있고, 미루어 놓았던 연구논문들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독 계획했던 사역에 관련된 일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때문에 취소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겪는 경험들입니다. 매번 준비기간에 나름 최선을 다하였던 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려 하고,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아쉬움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인 수용자세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과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심을 믿고 믿으며, 아쉬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분명한 길임을 깊이 받아들이는---‘겸손함’---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껏 저를 복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저를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여 주심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눕니다:

- 1) [파압-언어학과] 2023-24년 훈련생들이 영육이 건강하게 2학기 훈련(2024년 1월~5월)을 잘 받고 사역의 준비를 이루도록, 교수들 모두 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 2) 어머니가 재활운동을 통해 몸의 약해진 부분들이 모두 회복되어 잘 걷고, 장활동이 원활하여 가스가 차지 않도록, 작은언니-형부, 큰조카 가정의 속이 좋은 교회로 인도되어 예배생활을 회복하도록
- 3) 2024년에 체력도 잘 단련하면서 주님 안에서 쉼도 잘 누리고, 4월초부터 '브라오'언어 '문법' 컨설팅을 지혜로 잘 이루도록/ 마련된 연구논문 한 개가 P 언어학 저널에 출판되도록
- 4) [말리] 많은 '조'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몇 개 마을에 세워진 교회들에 말씀이 흥왕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도록, '마마'와 '카림' 형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도록, '카림'의 '뇌경색'증상이 잘 치료되도록

금년 한 해 동안에도 기도와 헌물로 함께 동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풍성한 연말과 새해를 맞으시기를 기원드리며,

다음 소식 드릴때까지 주 안에서 모두 강건하십시오

김혜경 선교사 드립니다.